

가족이 함께 걷는 묵주기도의 길 - 남양성모성지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다
묵주기도를 할 때
너희는 나를
너희의 기도
초대하는 셈이다
묵주기도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기도이다

- 고편비 신부님에게 성모님이

월간 소식지 2025. 11. 415호

18260 경기도 화성시 남양성지로 112 (남양읍)

전화 사무실 : (031) 356-5880

성물방 : (031) 356-8880 / 팩스 : (031) 357-5775

그것은 묵주기도 덕분입니다.

이상각 신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제1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첫 발현일인 5월 13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7월 13일 발현 때에도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 증거는 멀리 1571년의 레판토 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가까이 오스트리아의 해방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소련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게 된 오스트리아인들은 해방을 간절히 원했지만 3년 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억 3천만이나 되는 소련에 대항할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그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7백만이었습니 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기도의 사도라 불리는 베드로(Peter Pavlicek) 신부는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상기했습니다. 3대 1이라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교황 비오 5세의 인도하에 이끈 묵주기도의 행렬은 터키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신부는 보속과 희생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던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다면 평화를 위해서는 왜 그런 조직을 이룰 수 없겠는가? 베드로 신부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고 소련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의 십자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부터 비엔나에서는 매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얻기 위한 속죄 미사가 봉헌되었고 오스트리아 인구의 10분의 1인 70만 명이 매일 묵주기도 드릴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인 5월 13일,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군사 전문가들과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데레사 뉴만은 “그것은 오스트리아인들이 바친 묵주기도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이 바친 묵주기도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헝가리의 해방투쟁보다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남양 순교지를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 로사리오의 성모성지로 선포한 지 올해로 34주년이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황무지 같던 남양이 오늘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장소로 변화되고,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대성당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묵주기도 덕분입니다. 묵주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각 신부님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 “이상각 신부”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 주세요.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음악당의 생명은 그 공간이 지닌 고유한 어쿠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Tokyo Opera City Concert Hall에서 임윤찬의 첫 음을 듣는 순간, 온몸을 감싸던 그 울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근함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명품 울림을 가진 음악당이었습니다. 그 포근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던 차에, 어제(2025년 7월 19일)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열린 임동혁의 피아노 독주회 앵콜 무대에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Op.35 3악장 장송 행진곡이 울려 퍼졌을 때, 그 울림에 따뜻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임동혁의 연주는 삶이 녹아 있는, 영혼을 울리는 영롱한 연주였습니다.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은 성전 건립 당시부터 전례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을 고려해 설계된 공간이라, 이미 따뜻하고 열정적인 어쿠스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마련된 단상 덕분에 더욱 풍성한 소리가 살아났고, 제 귀에는 Tokyo Opera City Hall의 울림을 그대로 간직한 명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임동혁이 Op.35의 장송 행진곡을 연주하며 줄리아노 반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숨털까지 전율이 이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은 챔버 오케스트라와 성악 앙상블의 최적 위치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아야겠지만, 영혼이 담긴 이 대성당의 울림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 바로크 합창 전문 지휘자 이성훈

이성훈 지휘자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연주가 있는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저 또한 임동혁의 연주를 들으며 소름이 돋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음악이 아니시라면, 세계는 혼돈이겠지. 그러나 세계는 결코 혼돈이 아니다.

혼돈은 음악이 아닌 우리 속에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사랑은 음악이다. 그리고 이는 나를 끝없이 행복하게 만든다.” (레기날드링엔 바하)

저는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사랑은 음악이다.’ 라는 아름다운 정의를 대성당 설계 시초부터 잊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로서 건축가 마리오 보타에게 대성당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오 보타가 “신부님은 대성당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음악당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당연히 전례를 거행하는 대성당입니다. 하지만 예술과 문화의 시대에 대성당이 미사만을 봉헌하는 공간이 된다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전례 거행과 함께 대성당 안에서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아름답고 멋진 일 가운데 음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은 천사의 말이며 바람에 들려오는 신의 속삭임이고 인간에게 위로를 건네고 영혼을 정화하고 치유해 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성당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성당의 건축음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보기에 좋으면 소리도 좋습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은 뛰어난 비주얼과 빼어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시대입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감동을 건네는 그림과 조각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에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옵니다.

문화와 예술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새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엄마의 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따듯함과 위안과 평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에 문자로 제1회 화성 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의 티켓이 인터파크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후원회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봄 화성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화성시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고품격 문화예술 축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영 국제음악제나 대관령 국제음악제 같은 음악제를 남양성모성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한 대성당, 실내악과 리사이틀이 가능한 소성당, 클래식, 대중음악, 영화, 연극, 전시, 미디어아트, 교육 등 다양한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성 요셉 예술원의 블랙박스, 수천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음악당과 야외 광장들 국내에서 찾기 힘든 공간입니다. 이 멋진 공간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친 사람들을 남양성모성지로 초대해 그들에게 진지한 음악, 차별화된 품위 있는 음악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홀에 ‘진지함이야말로 참된 기쁨’(RES SEVERA VERUM GAUDIUM)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예능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진지한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것을 따뜻하게 나누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진지함이야말로 대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화성시 관계자들이 공감하여 제1회 화성 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대성당에서 왜 음악회를 하지?’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성당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위로 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회를 합쳐 국제적인 음악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음악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음악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티켓을 구입하셔서 공연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리는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야 공무원들이 ‘효과가 있다’, ‘계속하자.’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년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향의 연주가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과 경희 음대 손정범 교수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 연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뱅상 듀보아 교수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며 제2회 화성 클래식 음악제 첫날인 9월 11일에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연주가 있습니다. 대성당은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서는 무대이며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맛집을 찾아 여기저기 많이 찾아 다닙니다. 이제 맛있는 소리를 찾아 대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기적 확성 장치 없이 자연음 그대로 나는 연주 소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귀가 피곤한 음악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음악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 남양성모성지 이상각 신부



찰스가 그걸 기도 목록에 올렸어요!

어느 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온 열여섯 살 소년 찰스와 그의 어머니 에스더가 내 공방을 찾아왔다. 에스더는 찰스가 두 살 때 이미 (“아직 기저귀를 찬 채로”) 바이올린을 시작했다면서, 당시 그녀는 기도 중에 찰스에게 작은 바이올린을 주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찰스는 놀이울 안에 바이올린이 없으면 울음을 터뜨렸지만, 에스더는 아들이 장차 어떻게 자랄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 뒤 찰스는 만 여섯 살에 이미 찰스턴 청소년 현악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고, 열네 살에 청소년 관현악단의 콘서트마스터(제1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되었다. 내 공방에 왔던 시기, 찰스는 하루에 다섯 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작곡을 겸하고 있었다.

나는 찰스의 바이올린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바이올린을 만났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사연이 있었고, 그 역시 듣는 믿음과 관계가 있었다. 2년 전쯤 이제 찰스의 악기를 3/4사이즈에서 풀사이즈로 바꾸어줄 시점이 도래했을 때 가족은 찰스 수준에 맞는 풀사이즈 바이올린을 살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 에스더는 그래서 “찰스가 그걸 기도 목록에 올렸어요!”라고 했는데, 순간 그 말이 커다란 북소리처럼 내 귓가를 울렸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내게는 우리가 얼마나 기대 없이 사는지를 고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찰스가 새로운 바이올린이 필요하다는 사안을 기도 목록에 올린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에스더는 평소와 달리 집에서 아침을 먹는 대신 두 자녀와 남편과 함께 가까운 팬케이크 하우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팬케이크 하우스에 갔고, 그곳에서 아침을 먹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처음 보는 두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아이들 이야기도 하게 되

었다. 찰스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하자, 둘 중 더 젊어 보이는 여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였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찰스에게 새로운 바이올린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에스더는 약간 당황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절한 풀사이즈 바이올린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에게 바이올린 다섯 대가 있는데, 다섯 대 모두 팬케이크 하우스 앞에 세워놓은 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다며 바로 그 바이올린들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뉴욕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며 다섯 대의 바이올린을 보유했는데, 이제 뉴욕 집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바이올린은 그냥 택배로 보내기에는 너무 귀중품이라 직접 뉴욕에 가서 악기를 싣고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밤새 달려왔고, 이른 아침에 우연히 웨스트버지니아의 이 작은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다. 지나가다가 팬케이크 하우스를 보고는 좀 쉬면서 아침을 먹고 갈까 하고 즉흥적으로 들어왔는데 에스더 가족들을 만난 것이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찰스는 가까운 교회로 가서 그분들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였고, 그 두 여인은 찰스의 연주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트렁크를 열어, 다섯 대의 바이올린 중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바로 1807년 요제프 클로츠가 제작한 것으로, 2만 달러 이하로는 아예 살 수가 없는 바이올린이다. 그들은 찰스에게 “자, 이제 네 바이올린이란다!”라면서 할아버지도 틀림없이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는 차에 올랐다. 찰스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찰스는 그렇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만났고, 그로부터 2년 뒤 나는 공방에서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마틴 솔레스케 지음, 「울림」 中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3일 동안 경복궁에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 보고 싶었다던 한 자매를 만났다. 한복까지 입으니 시간 여행을 해서 진짜로 조선 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길거리를 걷다가 그 시대의 또래를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말하던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으면 울컥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뒤 인형 병원을 취재할 때였다. 다 해진 낡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곳이었는 데 마침 어릴 때부터 함께한 햄토리 인형을 수선하러 온 대학생이 만나게 되었다. 햄토리 인형은 보기에 너무 낡고 해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넘게 햄토리와 같이 웃고 울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주고자 인형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 입사 지원했던 곳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햄토리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햄토리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바로 잊지 못하고 눈물을 애써 참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불합격 문자를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관찮은 척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까짓 실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약한 자신을 들켜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관찮지 않았던 것이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힘내’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 해주는 걸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 고군분투하면서도 끊임 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인 게 못마땅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꺾 꺾 눌러 담은 감정들과 상처가 끓아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울컥하며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 박지현, 「참 관찮은 태도」 중

울 추석,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묵주기도의 탄생 역사

- E.J. 안센 신부(도미니코회)

피레네 산맥 기슭에 푸리에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과거 그곳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룩한 마리아의 이름으로 한 성당이 축성되었다. 도미니코 성인은 이 작은 성당을 자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포교 활동에 도움과 위로를 받고자 마리아의 도움을 간청했다. 그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했으며, 성모님께 순종과 정결을 약속했다. 도미니코 성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습을 보았으며 발두스파와 알비파가 저지른 나쁜 짓들을 보았다. 그는 성당 안의 악습과 맞서 싸우고 발두스파와 알비파를 회개시키기 위해 수도원을 설립하고자 했다. 어느 날 그가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의 앞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예수님은 노여워하며 죄인들을 벌하려 하셨고 성모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아들 앞에 꿇어앉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청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도록 요청하셨고, 도미니코 성인은 수도회를 창설하였으며 성모님께서서는 그에게 각별한 후원을 약속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중개를 통해 그 성인은 영광스러운 회개 사명을 받았고, 또한 -그 사도의 여왕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 모든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한 특별한 무기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묵주기도였다. 그 일은 1213년에 일어났는데 알비 근처 드레헤라

는 이름을 가진 어느 경당에서였다. 그 경당은 성모님께 봉헌되어 있었다. 어느 날 도미니코 성인이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성모님께서 거룩한 광휘로 둘러싸여 있는 아기 예수와 함께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도미니코에게 “나의 아들이자, 자비로우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받아들였다. 가까이 다가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의 선물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다.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성모님께서서는 그에게 산호가 주렁주렁 달린 줄을 건네주시면서 묵주기도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치유 받고 구원받기 위해 이를 세상에 알리라고 명령하셨다. 성인께서는 용기와 인내로 묵주기도를 설교하셨다. 도미니코 성인은 거룩한 묵주기도 형제회를 창설했다. 그가 하는 일에는 눈에 띄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졌다.

성모님께서서는 여러 번 발현하셨다.

한번은 성모님께서 자신의 외투를 열어 보이셨는데, 도미니코 성인은 수많은 무리의 남자들이 자신의 수도원의 수도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성모님께서서는 그의 수도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가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하셨다. 성인은 성모님께 느끼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모님께 대한 신뢰도 형언할 수 없이 컸다.

- 마리아 94호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성모님께서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주신 묵주기도를 우리도 기쁘게 받고 더 많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파티마의 성모님 목격자이신 루치아 수녀님께서 푸엔테스 신부님께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의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께서 새롭게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을 알려 주셨습니다.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족, 세상 모든 가정의 문제, 신앙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묵주기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거룩한 묵주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묵주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위안을 드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모두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 성월에 묵주기도의 동산인 남양성모성지에 더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10월 7일은 남양 순교지를 성모님께 봉헌해 드리고 로사리오의 성모성지로 봉헌한 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지의 서른네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날 성지를 순례하시는 분들은 전대사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성모성지 봉헌 34주년 감사 미사

일시 : 10월 7일(화) 오전 11시 미사 (미사 전 묵주기도)
※ 수도회 신부님 초청 고해성사 오전 10시~12시

미사 시간 변경

10월 18일(토) 한국 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미사가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오전 10시에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주례)
이날 오전 11시 미사는 없으니 성지 순례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 오셔서 10시 미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해성사와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바치기도 없습니다.)

한가위 연휴 사무실 휴무 및 미사 신청

한가위 연휴인 10월 5일(주일)부터 9일(목)까지 성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한가위 미사 신청은 10월 4일(토)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한가위 연휴 중 미사 참석하시는 분은 당일 성지에 오셔서 봉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11회 남양성모성지 평화 음악회 '가을의 축복'

올해 11주년을 맞는 남양성모성지 평화음악회는 독일 궁정가수로 선정된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이끄는 실내악 앙상블의 연주로 듀엣, 트리오, 피아노 5중주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알기 쉬운 해설도 함께합니다.

일시 : 10월 25일(토) 오후 5시 (4시부터 입장 가능, 비지정석)

티켓 : 전석 초대 / 예매 필수(네이버 검색창에서 <남양성모성지>를 검색해 주세요. 1인 2매 예매 가능)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바치기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일시 : 토요일 오후 2시

(둘째 토요일은 성령기도회)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남양성모성지 성령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6시

10월 11일(토) 윤창호(도미니코) 신부님

11월 8일(토)

장소 : 남양성모성지 열두 개의 별 경당

일정 : 4시 말씀 특강 / 5시 미사 및 치유 안수



‘짓다가 만 집’과 ‘짓고 있는 집’

‘짓다가 만 집’과 ‘짓고 있는 집’은 다릅니다.

‘짓다가 만 집’은 흉물처럼 보이지만 ‘짓고 있는 집’은 미완의 예술품입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이 그렇듯 어떤 건물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짓고 있고, 그 ‘짓고 있는 집’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미래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고도원)

남양성모성지 봉헌 20주년이었던 2011년, 남양 성모 마리아 대성당 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2017년 착공하여 2023년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헌 3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대성당은 아직 ‘짓고 있는 집’입니다. 가우디의 사그다라 패밀리(성가족) 성당만큼은 아닐지 모르나, 남양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감동하며 또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우리 후원자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시작된 이 대성당이 ‘짓다가 만 집’이 되지 않도록 빛나는 기대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기원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봉헌 방법

“1구좌 100만원” (1구좌 당 한 명의 이름으로 봉헌하실 수 있으며 매월 13일과 23일 두 대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1. 일시봉헌 : 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 후 성지사무실로 알려주세요.

농협 355-0038-5043-4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2. 분할봉헌 : 100만원을 매월 2만원씩 또는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성모성지 사무실 전화 031) 356-5880 | 팩스 031) 357-5775 | 이메일 go3mail@empas.com

※ 대성당 봉헌이 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성당 건립과 성지 운영을 위해 성모님께 장미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으로 5,000원이나 10,000원씩 꾸준히 봉헌하는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성모성지 후원회비 보내주실 곳

농협	355-0038-5041-7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신협	137-003-248126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체국	100131-01-00545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1005-102-636520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기업은행	450-037748-04-023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576601-04-03982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성함이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체 후 전화나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E-mail : go3mail@empas.com